

## 독일어 조건문의 유형과 의사소통기능

최정미/강창우(서울대)

### 0. 들어가는 말: 현상과 문제점

독일어에서는 일반적으로 (1)에서처럼 wenn, falls와 같은 종속 접속사로 유도되는 부사절을 조건문 Konditionalsatz이라고 부른다.<sup>1)</sup>

- (1) a. Wenn es sehr kalt ist, (dann) friert der See zu.  
 b. Falls du mir hilfst, sind wir in einer halben Stunde fertig.

조건문과 그것의 주문장으로 이루어지는 조건구문 Konditionalsatzgefüge 은 대개 다음과 같은 통사적·의미적 특성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 전건<sup>2)</sup>이 후건에 선행하면 후건은 도치 어순을 갖는다.
2. 후건에는 dann과 같은 상관사 Korrelat가 사용될 수 있다.
3. 전건은 후건의 전제나 조건을 나타낸다.

---

1) 이 논문에서는 ‘조건문의 유형’이 다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건구문의 유형’이 다루어지고 있으므로, 제목을 이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해주신 심사자에게 감사 드린다. 이 연구의 주요 목표 중 한 가지는, 조건문은 통사적·의미적 특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지며, 각 유형은 서로 다른 의사소통기능상의 특성을 갖는다는 것을 보이는 데 있다. 그런데 조건문의 통사적·의미적 특성은 조건문이 주문장과 갖는 통사적·의미적 관계 속에서 적절하게 파악될 수 있으므로, 조건구문 전체가 분석의 대상이 되었다. 그렇지만, 우리의 관심은 조건문의 유형을 분류하는 것이므로, 논문의 제목에 ‘조건구문의 유형’이라는 표현 대신 ‘조건문의 유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2) Eisenberg(1994: 362)에 따르면, 원래 전건 Antezedens과 후건 Konsequenz은 표현의 의미론적 기능과 연관된 개념이다. 그러나 그것은 조건구문의 각 부분, 즉 조건문과 그것의 주문장을 지칭하는 것으로도 널리 통용되어 왔다. 앞으로는 조건구문의 각 부분을 지칭하기 위해 편의상 ‘전건’과 ‘후건’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겠다.

그러나 언어자료에서는 이와는 전혀 다른 특성을 나타내는 (2)와 같은 조건구문<sup>3)</sup>도 발견된다.

(2) Wenn du es noch nicht wußtest, Karl ist wieder im Lande.

이 구문에서는 (3a)와 (3b)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오히려 후건이 도치어순을 취하거나 후건에 상관사가 사용되면 비문법적인 문장이 된다.

(3) a. \*Wenn du es noch nicht wußtest, ist Karl wieder im Lande.

b. \*Wenn du es noch nicht wußtest, dann ist Karl wieder im Lande.

의미적으로도 (1)과 같은 유형의 조건구문에서 전건은 후건이 실현되기 위한 조건을 나타내지만, (2)와 같은 유형의 조건구문에서는 전건과 후건 사이에 이와 같은 의미적 연관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현상을 볼 때, 조건구문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기된다.

1. 후건의 어순은 어떤 경우에 도치되고, 어떤 경우에 정치되는가?
2. 상관사는 어떤 경우에 사용되고, 어떤 경우에 사용되지 못하는가?
3. 조건구문, 특히 (2)와 같은 유형의 조건구문에서 전건과 후건 사이에는 어떤 의미 관계가 존재하는가?
4. 조건구문에서 전건과 후건 사이의 통사 구조와 의미 관계는 서로 어떤 관련이 있는가?
5. 앞에서 살펴 본 두 가지 유형의 조건구문에서 전건은 기능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가?

본 논문에서는 이 문제들은 조건문이 주문장과 갖는 통사적·의미적 관

---

3) (2)와 같은 유형의 구문도 일반적으로 조건구문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계 및 조건문이 갖는 의사소통기능상의 특성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이 특성들을 분석함으로써 위에서 제기한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한다.

## 1. 조건문과 조건성

조건문의 의미적 속성은 주로 조건성 *Konditionalität*이라는 개념을 통해 기술된다. 조건성이란 “조건적 관계, 즉 조건과 조건 지워지는 것 사이의 관계 *Bedingung-Bedingtes-Relation*”(Heidolph u.a. 1981: 791)를 이루는 것으로서, 이때 조건적 관계는 전건과 후건에 기술된 사태들 간에 존재한다.<sup>4)</sup> 즉 조건문은 “주문장에 언급된 사태가 존재하기 위한 또는 타당하기 위한 조건 혹은 전제조건”을 나타낸다(Duden 1995: 771). 예를 들어, (1a)의 ‘호수가 언다’는 사태는 ‘날씨가 춥다’는 조건하에서만 발생할 수 있으며, (1b)의 ‘우리가 30분만에 일을 끝낸다’는 것 역시 ‘네가 나를 돕는다’라는 조건하에서만 가능하다.

조건문은 조건성을 표현하는 가장 전형적인 언어적 수단이다. 그러나 모든 조건문의 의미적 속성을 위에서 언급한 조건성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음 예문들을 보자.

- (4) a. Die Wellen gehen sehr hoch, wenn es sehr windig ist.  
b. Wenn das Seil stark belastet wird, reißt es ab.
- (5) a. Wenn das Frühjahr kommt, kehren die Vögel zurück.  
b. Wenn du heimkommst, mache ich alle Lichter an.
- (6) a. Wenn du es wissen willst, wir ziehen um.  
b. Wenn du Hilfe brauchst, Paula ist zu Hause.

---

4) ‘조건성’이란 개념은 철학에서 유래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에 대한 정설은 아직 없다. 이 개념은 언어학 내에서도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Fabricius-Hansen/Soebø(1983: 1)는 “조건과 결과 사이의 관계”로 정의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조건과 조건 지워진 것 사이의 관계”로 본 Heidolph u.a. (1981: 791)의 정의를 논의의 바탕으로 삼겠다.

Hermodsson(1978: 31)에 따르면, (4)의 전건과 후건 사이에는 이유-결과 관계 Grund-Folge-Relation가 존재하는데, 여기서 이유-결과 관계는 실재하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한, 단지 실현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조건성을 인과성을 포함하는 상위 개념으로 파악한다면,<sup>5)</sup> 가능한 이유 ein möglicher Grund를 나타내는 (4)의 조건문 역시 조건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5)에서는 조건문을 통해 시간성 Temporalität이 표현된다. 즉 여기서 접속사 wenn은 시간적 접속사로 사용된 것이다. 그러나 대체로 시간성은 조건성의 한 속성으로 간주되므로, 여기서처럼 시간적 관계<sup>6)</sup>가 표현되는 wenn절 역시 조건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sup>7)</sup>

(4)-(5)의 조건구문에서 전건에 기술된 사태는 모두 후건에 기술된 사태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 된다. 그러나 (6)의 조건구문에서는 전건과 후건의 사태 사이에 조건적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서 조건적 관계는 전건에 기술된 사태와 후건의 언어 행위 사이에 존재한다. 이 점은 전건과 후건 사이에 다음과 같은 상위문 Hypersatz을 삽입해 보면 분명해진다.<sup>8)</sup>

- (7) a. Wenn du es wissen willst, *kann ich ja gleich sagen*, wir ziehen um.  
 b. Wenn du es (unbedingt) wissen willst, *sage ich dir widerwillig*, wir ziehen um.

5) Zifonun/Hoffmann/Strecker u.a.(1997: 2290)는 인과적, 결과적, 양보적, 목적적 관계를 “조건적 관계에 기초한 관계”로 보았다. Heidolph u.a.(1981: 795) 역시 조건적 관계를 이유-결과 관계를 포함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6) Hermodsson(1978: 52)에 따르면, 시간적 wenn절의 전건과 후건에 언급된 사태들 사이에는 “특정한 시간적 관계”가 존재하며, 전건과 후건에 표현된 사태들은 “동일한 시간 영역에 속해 있는 것으로” 기술된다.

7) Eisenberg(1994: 522)는 Hartung이 제안한 다음과 같은 치환테스트를 이용하여 조건적 wenn절과 시간적 wenn절을 구별할 수 있다고 했다. “wenn이 오직 falls와 sofern에 의해서만 치환되고, 시간적 접속사에 의해서는 치환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조건적 용법이다. wenn이 오직 시간적 접속사에 의해서만 치환된다면 그것은 시간적 용법이다.”

8) 조건문의 관련 층위 Bezugsebene에 대해서는 3장 1절에서 상세하게 다룬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건문은 전건과 후건에 기술된 사태들 사이의 조건적 관계를 나타낸다는 전통적인 설명은 다음 두 가지 관점에서 수정·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1. 조건문은 좁은 의미에서의 조건성 이외에 다양한 관계를 나타낼 수 있으므로, 조건문의 의미적 속성을 조건성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조건성을 인과성과 시간성 등을 포괄하는 넓은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
2. 조건성은 전건과 후건이 기술하는 사태들 사이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조건성이란 개념으로 조건문의 의미적 속성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조건성이 존재하는 층위를 구분하여 설명에 반영해야 한다.

## 2. 조건구문의 통사적 유형 분류

조건문의 의미와 기능을 분석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우선 조건문의 형태와 조건문이 주문장과 형성하는 통사적 관계를 중심으로 조건구문의 유형을 분류하겠다. 조건구문은 통사적으로 볼 때, 다음과 같이 다양한 형태를 갖는다.

- (8) a. Wenn du mich schlägst, schlage ich dich.  
b. Schlägst du mich, schlage ich dich.
- (9) a. Wenn Karl kommt, werde ich Paul treffen.  
b. Ich werde Paul treffen, wenn Karl kommt.  
c. Ich werde, wenn Karl kommt, Paul treffen.
- (10) a. Wenn Anna kommt, verlasse ich den Raum.  
b. Wenn du Interesse hast, unsere Party beginnt um acht Uhr.
- (11) a. Wenn Anna kommt, dann verlasse ich den Raum.  
b. \*Wenn du Interesse hast, dann beginnt unsere Party um acht Uhr.

(8)-(11)에서 보듯이 조건구문은 ‘접속사의 사용’, ‘전건과 후건의 위치 관계’, ‘후건의 어순’, ‘상관사의 삽입 가능성’과 같은 기준들에 의해 세분될 수 있다. 아래에서는 이와 같은 통사적 기준들을 이용하여 조건구문의 유형을 분류하겠다.

## 2.1 접속사를 수반하는 유형

### A. 전건이 전치되는 유형<sup>9)</sup>

[A1-1] WENN+S+…+V, (DANN)+V+S+….

(S: Subjekt, V: Verb)

(12) Wenn Karl kommt, (dann) werde ich Paul treffen.

(13) Wenn du mir hilfst, (dann) wird alles gut gehen.

[A1-2] DANN, WENN+S+…+V, V+S+….

(14) Dann, wenn Karl kommt, werde ich Paul treffen.

(15) Dann, wenn du mir hilfst, wird alles gut gehen.

[A2] WENN+S+…+V,<sup>10)</sup> S+V+….

(16) Wenn du Hilfe brauchst, ich bleibe den ganzen Nachmittag zu Hause.

(17) Wenn du es noch nicht wußtest, Karl ist wieder in Berlin.

### B. 전건이 후치되는 유형

[B1-1] DANN+V+S+…., WENN+S+…+V.

(18) Dann werde ich Paul treffen, wenn Karl kommt.

(19) Dann fährt er nächstes Jahr nach Amerika, wenn er das

9) 조건문의 유형을 표기할 때 wenn, falls, sofern과 같은 접속사는 WENN으로, so, dann과 같은 상관사는 DANN으로 통일하여 표기하겠다.

10) 후건의 어순이 정지되는 조건구문에서 전건과 후건 사이에 ‘;’ 이외에도 ‘:’, ‘-’와 같은 다양한 표기들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발화시의 휴지 Zäsur를 나타낸다.

Stipendium bekommt.

[B1-2] S+V+...+(DANN)+..., WENN+S+...+V.

(20) Ich werde Paul (dann) treffen, wenn Karl kommt.

(21) Ich werde (dann) Paul treffen, wenn Karl kommt.

[B2] S+V+..., WENN+S+...+V.

(22) Unsere Party beginnt um acht Uhr, wenn du Interesse hast.

(23) Ich bin der Nachtportier - wenn ich nicht störe.

C. 전건이 삽입되는 유형

[C1] S+V+...+(DANN), WENN+S+...+V, ...

(24) Ich werde (dann), wenn Karl kommt, Paul treffen.

(25) Ich werde Paul (dann), wenn Karl kommt, treffen.

[C2] S+V+..., WENN+S+...+V, ...

(26) Er ist, wenn Sie mir ein offenes Wort gestatten, ein Dummkopf.

(27) Das Buch erschien, wenn Sie sich erinnern, erstmals 1982.

## 2.2 접속사를 수반하지 않는 유형

접속사를 수반하지 않는 조건구문에서는 전건이 전치되는 경우만 있고, 후치되거나 삽입되는 경우는 없다.<sup>11)</sup>

11) (i)에서처럼 접속사를 수반하지 않는 조건문은 후치될 수 없지만, 구어체에서는 (ii)와 같이 후건의 언어 행위에 대한 조건을 나타내는 경우에 후치되는 예도 언어 자료에서 간혹 발견된다. 그러나 이런 현상은 체계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며, 또한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문법성이 매우 의심스러우므로 이 논문에서는 다루지 않겠다.

(i) \*Er fährt nächstes Jahr nach Amerika, bekommt er das Stipendium.

(ii) ?Unsere Party beginnt um acht Uhr, hast du Interesse.

또한 접속사를 수반하지 않는 조건문은 주문장에 삽입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

D. 전건이 전치되는 유형

[D1] V+S+..., (DANN)+V+S+....<sup>1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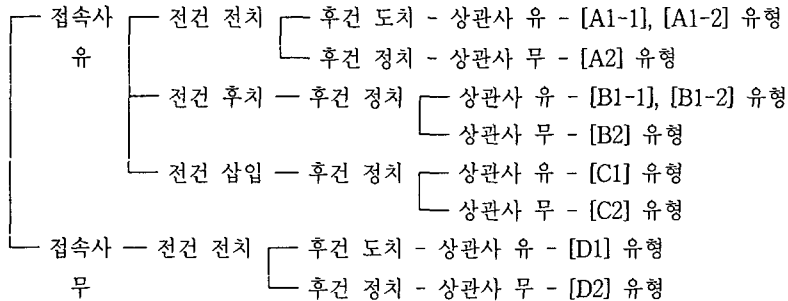
(28) Kommt Karl, (dann) gehe ich.

(29) Hat er keine Lust, (so) geht er nicht ins Kino.

[D2] V+S+..., S+V+....

(30) Hast du Interesse, unsere Party beginnt um acht Uhr.

지금까지 분류한 조건구문의 유형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 표에 나타난 조건구문의 유형별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A1], [B1], [C1], [D1] 유형은 상관사를 삽입하는 것이 가능하고, [A2], [B2], [C2], [D2] 유형은 상관사를 삽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구하고 삽입된다면, 삽입된 조건문은 발화 중간에 '질문'과 같은 또 다른 화행이 수행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iii) \*Er fährt, bekommt er das Stipendium, nächstes Jahr nach Amerika.

(iv) \*Unsere Party, hast du Interesse, beginnt um acht Uhr.

12) 이러한 유형의 조건구문은 전건과 후건이 동일한 어순을 갖기 때문에, 전건과 후건의 조건적 관계를 나타낼 수 있도록 후건에 종종 so나 dann 같은 상관사가 사용된다. Engel(1996: 289)과 Helbig/Buscha(1998: 690)에 따르면, 전건이 접속사를 수반하지 않는 조건구문에서는 상관사 so가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A1], [D1] 유형은 후건의 어순이 도치되고, [A2], [D2] 유형은 후건의 어순이 정치된다.

3) [B], [C] 유형은 후건의 어순이 모두 정치된다. 따라서 후건의 어순에 의해서는 [B1], [C1] 유형과 [B2], [C2] 유형이 형태적으로 구별되지 않는다.

조건구문은 상관사의 삽입 가능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는데, 상관사 삽입이 가능한 유형에서 전건과 후건 사이의 통사적 결속력이 상관사 삽입이 불가능한 유형에서보다 더 강하다. 예를 들어, (12)와 (13)에서 전건은 후건의 전장 Vorfeld에 위치하지만, (16)과 (17)에서 전건은 후건의 전장에 올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sup>13)</sup> 이런 결속력의 차이에 근거하여, 상관사 삽입이 가능한 조건구문의 통사적 구조를 ‘결합구조’라고 하고, 상관사 삽입이 불가능한 조건구문의 통사적 구조를 ‘비결합구조’라고 부른다.

### 3. 조건문의 의미적 유형 분류

이 장에서는 조건문의 관련 층위 문제와 조건문이 주문장과 갖는 의미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조건구문의 통사적 구조와 의미적 구조의 연관성에 대해서 고찰하겠다.

#### 3.1 조건문의 관련 층위

1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조건구문에서 전건과 후건의 의미 관계는 전건과 후건에 기술된 사태들 사이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sup>14)</sup> 다음 예문들을 보자.

13) 이 경우 전건은 후건의 전장 앞에 위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장 앞 위치에 대해서는 Günthner(1999)와 Kang(1996)을 참조하시오.

14) 강창우(1998: 386)에 따르면, 인과문의 관련 층위는 ‘명제 층위 Propositionsebene’, ‘인식론적 입장 층위 Ebene der epistemischen Einstellung’, ‘언어 행위 층위 Sprechaktebene’, 그리고 ‘언어적 표현 층위 Ausdrucksebene’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분류는 조건문의 경우에도 대부분 적용될 수 있다.

- (31) Wenn du mir hilfst, sind wir in einer halben Stunde fertig.
- (32) Wenn das Lämpchen nicht mehr brennt, ist der Motor kaputt.
- (33) a. Wenn Sie sich noch erinnern: Sie redete immer so schnell.  
b. Wenn ich offen sein darf: er ist eine Niete.

(31)에서 전건의 사태는 후건의 사태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 된다. 즉 여기서는 전건과 후건의 명제 층위 사이에 조건적 관계가 존재한다. (32)에서 전건은 후건의 사태가 아닌, 후건의 사태에 대한 화자의 추측과 조건적 관계에 놓여 있다.(Duden 1995: 772 참조) 즉 전건은 후건의 인식론적 입장 층위와 관련된다.<sup>15)</sup> 이 점은 다음과 같은 바꿔 쓰기를 통해 분명히 드러난다.

- (34) Wenn das Lämpchen nicht mehr brennt, *ist das ein Zeichen dafür, dass* der Motor kaputt ist.

(33)의 조건구문에서는 언어행위 층위에서 조건적 관계가 존재한다. Duden (1995: 774)에 따르면, 이러한 조건구문의 전건은 바로 인접한 후건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건과 후건의 관계를 보충해 주는 문장과 연관되어 있다.<sup>16)</sup> Engel(1996: 273)에서도 이와 유사한 설명을 찾을 수 있다. 그에 따르면, 이러한 조건구문의 전건은 전건과 후건 사이에 생략되어 있는 상위 개념의 문장과 연관된다. 이 점은 (33)의 후건 앞에 다음과 같이 상위문을 넣어보면 분명해진다.

- (35) a. Wenn Sie sich noch erinnern, *werden Sie mir bestätigen*: Sie

---

15) Dancygier(1998: 86f.)에 따르면, Sweetser는 추론적 영역에서 추론적 사태들의 관계를 다루는 조건문을 '인식론적 조건문 epistemic conditionals'이라고 불렀다.

16) 이런 유형의 조건구문에서 전건과 후건의 발화는 직접적인 연관 관계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특별한 화용적 의도가 없는 한, 다음 예문에서 B의 발화는 부적절하다. A: Ich bin der Nachtportier - wenn ich nicht störe. B: Und was sind Sie, wenn Sie stören? (Duden 1995: 774)

redete immer so schnell.

b. Wenn ich offen sein darf, *möchte ich sagen*: Er ist eine Niete.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건문은 주문장의 명제 층위뿐만 아니라, 인식론적 입장 층위 혹은 언어행위 층위와 연관되어, 전건과 후건 사이의 조건적 관계를 나타낸다.

### 3.2 조건문과 주문장의 의미 관계

이 장에서는 조건문과 주문장의 의미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명제 층위에서 조건성이 존재하는 경우와 언어행위 층위에서 조건성이 존재하는 경우로 나누어서 살펴본다. 먼저 명제 층위에서 조건성이 존재하는 다음 예문들을 보자.

- (36) Wenn der Motor kaputt ist, brennt auch das Lämpchen nicht mehr.
- (37) Er handelt so, wenn er es für richtig hält.
- (38) Wenn diese Dreiecke gleichwinklig sind, sind sie auch gleichseitig.
- (39) Wenn sie unterschreibt, bekommen wir die Wohnung.
- (40) Wenn sie mich für immer verlässt, kann ich nicht mehr leben.

(36)에서 전건에 기술된 사태는 후건에 기술된 사태의 원인이 된다. 즉 모터의 고장은 불이 들어오지 않는 것의 원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세계에 대한 지식에 근거하여 알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인과적 관계는 실재하는 사태가 아닌 단지 가정적인 사태, 즉 가능하지만 아직 실현되지 않은 사태들 사이에 존재한다. 즉 인과문이 실제 이유 ein wirklicher Grund를 나타낸다면, 조건문은 가능한 이유 ein möglicher Grund를 나타낸다.

(37), (38)의 조건구문에 존재하는 이유-결과 관계 역시 실재하는 사태가 아닌 실현 가능한 사태들 사이에 존재한다. (37)에서는 전건이 후건의 행동

에 대한 가능한 동기 ein mögliches Motiv를 나타내고, (38)에서는 전건이 후건의 진술에 대한 가능한 판단의 근거 ein möglicher Erkenntnisgrund를 나타낸다.<sup>17)</sup>

Athanasiadou/Dirven(1997: 65f.)에 따르면, (39)에서 전건은 후건에 기술된 사태에 대한 조건을 나타낸다.<sup>18)</sup> 이때 그들은 조건이란 개념을 논리학적 의미가 아니라, 이보다 훨씬 좁은 일상적인 의미, 즉 전건이 참이 되는 경우에만 후건이 참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39)는 ‘오직 그녀가 서명을 하는 경우에만 우리는 집을 얻게 된다’는 의미로, 즉 ‘그녀가 서명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집을 얻지 못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 (40)에서는 전건이 후건에 대한 ‘단순한 가정’을 나타낸다. 즉 ‘내가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후건의 사태는 ‘그녀가 나를 영원히 떠난다’는 전건의 사태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그녀가 나를 영원히 떠난다’는 조건하에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다. 이들에 따르면, 후건의 진술은 전건에서 가정된 사태에 대한 가능한 한 가지 극단적인 반응일 뿐이다. (36)이나 (39)의 경우는 전건의 사태가 실현되면 후건의 사태가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반면, (40)의 경우에는 전건의 사태가 실현된다는 가정 하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사태를 화자가 단지 예측해보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40)과 같은 단순한 가정의 경우에도 후건의 진술은 여전히 전건의 가정에 의존적이다. 만일 ‘그녀가 나를 영원히 떠난다’는 전건의 사태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후건에 진술된 사태 또한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언어행위 층위에서 조건성이 존재하는 다음 예문들을 보자.

17) “‘이유 Grund’는 대개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원인 Ursache’, ‘동기 Motiv’, 그리고 ‘인식의 근거 Erkenntnisgrund’. ‘원인’은 ‘realer Grund’ 혹은 ‘Sachgrund’라고도 하고, ‘동기’는 ‘Beweggrund’ 혹은 ‘moralischer Grund’라고도 한다. 그리고 ‘인식의 근거’는 ‘logischer Grund’라고도 한다.” (강창우 1998: 383)

18) Athanasiadou/Dirven(1997: 61)은 조건문의 유형을 사건 조건문, 가정적 조건문, 화용적 조건문으로 분류하였다. 그 중 가장 전형적인 조건문의 유형인 가정적 조건문은 전건과 후건의 의미 관계에 따라, ‘원인 cause’, ‘조건 condition’, ‘단순한 가정 mere supposition’을 나타내는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진다.

- (41) Wenn du Benzin brauchst, die Tankstelle ist an der Ecke.
- (42) Wenn Sie mir ein offenes Wort gestatten, er ist ein Dummkopf.
- (43) Wenn wir über unseren Onkel sprechen, er ist ein sehr fleißiger Mann.

이 예문들에서 후건의 진리치는 전건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즉 후건은 전건과 무관하게 그 자체로 참인 명제이다. 예를 들어, (41)에서 상대방이 휘발유를 필요로 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주유소는 그곳에 있으며, (42)에서 그가 바보라는 것은 상대방이 솔직하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는지 여부와 관계없다. 또 (43)에서 아저씨가 매우 부지런한 분이라는 사실은 전건과 관계없다.

명제 층위에서 조건성이 존재하는 조건구문은 전건과 후건의 명제 사이에 의미적 연관성이 있으며 후건의 사태가 전건의 사태에 의해 결정되는 반면, 의사소통 층위에서 조건성이 존재하는 조건구문은 전건과 후건의 명제 사이에 의미적 연관성이 없고 전건의 사태와 무관하게 후건의 사태가 존재한다. 이렇게 전건과 후건 사이에 의미적인 연관성이 존재하는 조건구문의 의미 구조를 ‘통합구조’라고 부르고, 의미적인 연관성이 없는 조건구문의 의미구조를 ‘비통합구조’라고 부르겠다.

통합구조를 갖는 조건구문과 비통합구조를 갖는 조건구문의 통사적 특성을 다음 예문을 통해 살펴보자.

- (44) a. Wenn du mir hilfst, sind wir in einer halben Stunde fertig.  
 b. \*Wenn du mir hilfst, wir sind in einer halben Stunde fertig.  
 c. Wenn du mir hilfst, dann sind wir in einer halben Stunde fertig.
- (45) a. Wenn du es noch nicht wußtest, Karl ist wieder im Lande.  
 b. \*Wenn du es noch nicht wußtest, ist Karl wieder im Lande.  
 c. \*Wenn du es noch nicht wußtest, dann ist Karl wieder im Lande.

통합구조를 갖는 (44)의 조건구문은 전건이 전치된 경우에 후건의 어순을 정치시킬 수 없으며, 상관사를 삽입하는 것이 가능하다. 비통합구조를 갖는 (45)의 조건구문은 전건이 전치된 경우에 후건의 어순을 도치시킬 수 없고, 상관사를 삽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즉, 통합구조를 갖는 조건구문은 통사적으로 볼 때 결합구조를 나타내고, 비통합구조를 갖는 조건구문은 비결합구조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44)처럼 통사적·의미적 결속력이 존재하는 조건구문은 ‘결합-통합구조’를 가지며, (45)처럼 통사적·의미적 결속력이 없는 조건구문은 ‘비결합-비통합구조’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sup>19)</sup>

#### 4. 조건문의 의사소통기능

2장과 3장에서 시도한 조건문의 유형 분류를 통해 조건문과 주문장이 갖는 통사적 구조와 의미적 관계 사이에 밀접한 상관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장에서는 조건문의 통사·의미적 특성과 조건문의 의사소통기능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겠다.

##### 4.1 조건문의 의사소통기능적 독립성

조건문의 의사소통기능을 연구할 때 먼저 제기되는 질문은 조건문이 과연 독립적인 의사소통기능을 갖는가라는 것이다. 이 문제는 부문장의 문장성 Satzwertigkeit 문제를 다룬 Harweg(1971, 1972)의 논의와 이 논의를 바탕으로 인과문의 의사소통기능적 독립성 문제를 다룬 Kang(1996)과 장창우(1997)의 논의를 바탕으로 접근하겠다.

Harweg(1971: 29ff.)은 부문장을 “문장성 부문장 Satzwerige Nebensätze”과 “문장부분성 부문장 Satzteilwertige Nebensätze”으로 구분하고,

19) 독일어 구어의 언어 자료에서는 통합구조를 갖는 조건구문에서 비결합구조의 특징인 정치 어순이 나타나거나 비통합구조를 갖는 조건구문에서 결합구조의 특징인 도치 어순이 나타나는 경우가 간혹 발견된다. 그러나 이러한 가능성은 체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본 논의에서는 제외하겠다.

하나의 부문장 혹은 주문장이 문장성을 갖는지, 문장부분성을 갖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진술로서의 완결성 *aussagemäßige Vollständigkeit*”을 든다. 강창우(1996: 58ff.)에 따르면, 어떤 언어적 표현이 진술로서의 완결성을 갖는다는 말은 이 언어적 표현으로 한 가지의 화행이 이루어진다 것을 의미하고, 어떤 언어적 표현이 진술로서의 완결성을 갖지 못한다는 말은 이 언어적 표현으로는 완결된 화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어떤 부문장이 문장성을 갖는가 혹은 문장부분성을 갖는가 하는 것은 바로 그 부문장으로 독립적인 화행이 실현되는가 혹은 실현되지 않은가 하는 것과 같은 문제인 것이다. 이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Kang(1996)에서는 조건문이 독립적인 의사소통기능을 수행하는 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여러 가지 테스트들을 제안하였다.

이 논의는 인과문과 같은 부사절에 속하는 조건문에도 적용될 수 있다. 여기서는 Kang(1996: 59ff.)에서 제안된 테스트들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변형하여 조건문이 의사소통기능적 독립성을 갖는지 알아보는 테스트로 이용하겠다.

(가) 치환 테스트: 조건구문의 전건과 후건이 전체로서 하나의 의사소통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조건문이 ‘*unter der Voraussetzung, (dass)...*’나 ‘*angenommen/vorausgesetzt, (dass)...*’와 같은 구문으로 의미 변화 없이 치환될 수 있지만, 조건문이 독립적인 의사소통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의미 변화 없이 치환될 수 없다.

(나) 상관사 삽입 테스트: 조건문에 쓰이는 *dann*과 *so*는 수의적 상관사로서, 조건구문의 전건과 후건이 전체로서 하나의 의사소통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삽입될 수 있으나, 조건문이 독립적인 의사소통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삽입될 수 없다.

(다) 음성학적 테스트: 조건구문의 전건과 후건이 전체로서 하나의 의사소통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전건과 후건 사이에서 억양이 떨어지지 않지만, 조건문이 독립적인 의사소통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전건과 후건 사이에서 억양이 떨어지며 휴지 *Zäsur*가 나타난다.

(라) 대화 형식에서의 해체 가능성 테스트: 조건구문의 전건과 후건이

전체로서 하나의 의사소통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unter welcher Bedingung’으로 시작하는 질문을 이용하여 조건구문을 대화 형식으로 해체해도 원래 의미가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조건문이 독립적인 의사소통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대화 형식으로 해체하면 원래의 의미가 변한다.

다음으로는 이 테스트들을 결합-통합구조를 갖는 조건구문과 비결합-비통합 구조를 갖는 조건구문에 적용하여, 이 두 가지 유형의 조건구문에 들어있는 조건문이 독립적인 의사소통기능을 갖는지 살펴보겠다.

## 4.2 조건문의 의사소통기능적 독립성 테스트

먼저 결합-통합 구조를 갖는 (46)에 앞에서 제시한 4가지 테스트를 적용하면, (47)과 같은 결과가 나타난다.

(46) Wenn Karl kommt, gehe ich.

(47) a. *Unter der Voraussetzung, dass* Karl kommt, gehe ich.

[치환테스트]

b. Wenn Karl kommt, *dann* gehe ich. [상관사 삽입 테스트]

c. Wenn Karl kommt, gehe ich. [음성학적 테스트]

(‘kommt’와 ‘gehe’ 사이에서 억양이 떨어지지 않는다.)

d. A: Unter welcher Bedingung willst du gehen?

B: Wenn Karl kommt. [대화 형식으로서의 해체 가능성 테스트]

(46)에서 조건문은 (47a)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의미 변화 없이 ‘unter der Voraussetzung, dass...’구문으로 치환될 수 있으며, (47b)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상관사를 삽입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47c)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전건과 후건 사이에서 억양이 떨어지지 않으며, (47d)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대화형식으로 해체해도 원래의 의미가 변화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테스트의 결과는 결합-통합 구조에서 조건문은 독립적인 의사소통기능을 갖지 못하고, 조건구문 전체가 하나의 독립적인 의사소통기능을 갖는 것을 보여준다.<sup>20)</sup>



다음으로 비결합-비통합 구조를 갖는 조건구문에 앞에서 제시한 테스트들을 적용하여 보자. 비결합-비통합 구조를 갖는 (48)의 조건구문에 앞에서 제시한 4가지 테스트를 적용하면, (49)과 같은 결과가 나타난다.

(48) Wenn du Benzin brauchst, die Tankstelle ist an der Ecke.

(49) a. Unter der Voraussetzung, dass du Benzin brauchst, die Tankstelle ist an der Ecke. [치환테스트]

b. Wenn du Benzin brauchst, dann ist die Tankstelle an der Ecke. [상관사 삽입 테스트]

c. Wenn du Benzin brauchst, die Tankstelle ist an der Ecke. ('brauchst'와 'die' 사이에서 억양은 떨어지며, 짧은 휴지가 나타난다.) [음성학적 테스트]

d. A: Unter welcher Bedingung ist die Tankstelle an der Ecke?

B: Wenn du Benzin brauchst.

[대화 형식으로의 해체 가능성 테스트]

(48)의 조건구문에서는 (49a)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조건문을 'unter der Voraussetzung, dass...'구문으로 치환하면 의미가 변화하며, (49b)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의미 변화 없이 상관사를 삽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49c)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전건과 후건 사이에서 억양은 떨어지며 짧은 휴지가 나타난다. 또 (47d)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대화형식으로 해체하면 원래의 의미가 변하게 된다. 이와 같은 테스트의 결과는 비결합-비통합 구조에서 조건문은 독립적인 의사소통기능을 갖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

20) 결합-통합구조에 나타나는 조건문은 독립적인 의사소통기능은 갖지 못하지만, 후건의 결과에 대한 가능한 이유나 조건을 제시한다. 그러나 Ford/Thompson (1986: 356)은 전치되는 조건문은 '가정하기', '대비시키기', '예시하기', '대안 찾기'와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고 본다. 그렇지만 이것들은 독립적인 의사소통 기능과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조건구문 내에서 조건문이 갖는 의미적 역할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4.3 비결합-비통합 구조에서 나타나는 조건문의 의사소통기능

4장 2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결합-비통합 구조에서 나타나는 조건문은 독립적인 의사소통기능을 수행한다. 이 장에서는 이 조건문이 갖는 의사소통기능에 따라 조건문을 적정조건문 Relevanz-Konditionale, 메타의사소통적 조건문 Metakommunikative Konditionale, 담화구성적 조건문 Diskursstrukturierende Konditionale으로 분류하고,<sup>21)</sup> 각 유형에 해당하는 조건문의 기능을 살펴보겠다.

#### 4.3.1 적정조건문의 의사소통기능

앞에서 비결합-비통합 구조를 갖는 조건구문에서는 명제 층위에서 전건과 후건 사이에 의미적 연관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후건의 사태는 전건에 기술된 사태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 즉 후건의 진술은 전건의 진술과 무관하게 참인 명제가 될 수 있고, 따라서 후건에 의해서 독립적인 단언 행위가 수행될 수 있다. 그러나 다음 예문들을 보자.

(50) Wenn du Hilfe brauchst, ich bleibe den ganzen Nachmittag zu Hause.

(51) Wenn du Lust und Zeit hast, wir machen morgen einen Kindergottesdienst.

(52) Wenn du Benzin brauchst, die Tankstelle ist an der Ecke.

(53) Wenn du es noch nicht wußtest, Hans ist wieder im Lande.

이 예문들에서는 후건이 참인 명제임에도 불구하고, 전건이 참이 아니라

21) Günthner(1999: 213)는 기존의 연구에서 조건문을 의사소통기능적 특성에 따라 하위 분류하고 명칭을 부여할 때 사용된 다음과 같은 다양한 용어들을 소개하고 있다. speech act conditionals, relevance conditionals, utterance-conditionals, pragmatic conditionals, metatextual conditionals, conversational conditionals, moduskommentierender Gebrauch von wenn-Sätzen.

면, 즉 전건에 주어진 조건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후건의 화행은 부적절한 것이 된다. 이와 같이 후건의 발화 또는 정보가 적절한 것이 될 수 있도록 가능한 상황을 설정해 주는 기능을 하는 조건문을 적정조건문<sup>22)</sup>이라고 부르겠다. 적정조건문의 이러한 기능은 Austin의 적정 조건 felicity conditions과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언어 행위가 맥락에서 벗어난 부적절한 것이 아니라 적절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적정조건문은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켜 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예를 들어, (50)에서 화자가 오후 내내 집에 머무르는 것은 전건의 사태와 관계 없이 참이다. 그러나 이 발화가 적절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전건의 전제조건이 참이 되어야만 한다. 즉 상대방이 정말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만 후건의 진술은 적절한 것이 된다.

#### 4.3.2 메타의사소통적 조건문의 의사소통기능

다음과 같은 조건문은 후건에서 실행될 화행의 성격에 대해서 언급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54) Wenn ich mal kurz einwerfen darf, er muss sich operieren lassen.

(55) Wenn ich nur das Wichtigste mitteilen soll, es geht ihm gut.

이와 같은 조건문은 메타의사소통적 조건문이라고 부르겠다. 이 유형의 조건문 역시 전건과 후건의 명제 사이에 의미적 연관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후건 내용의 실현 여부는 전건에 기술된 사태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적정조건문에서는 후건의 진술이 참인 명제임에도 불구하고 전건의 진술이 참이 아닌 경우에는 후건의 화행이 부적절한 것이 된다. 그러나 메타의사소통적 조건문에서는 후건의 화행의 적절성 여부가 전건의 진술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 즉 전건과 무관하게 후건의 화행은 적절하다. 예를

22) Köpcke/Panther (1989) 참고.

들어, (54)에서 ‘그가 수술을 받아야 한다’라고 화자가 주장하는 것은 전건과 무관하게 항상 적절하다. 전건에서 화자는 이어지는 화행을 ‘짧은 이의 제기’로 규정짓고, 후건에서 그 화행을 실현하는 것이다.

메타의사소통적 조건문은 후건에서 실행될 화행에 대해서 언급하는 기능 이외에도, 관용화된 어법으로서 후건의 발화를 공손하게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다음 예문들을 보자.

(56) Wenn Sie es mir gestatten, ich möchte eine Zigarette rauchen.

(57) Wenn Sie so gut sein möchten, ich trinke gerne etwas mehr Wein.

발화를 공손하게 표현하기 위해 (56)와 (57)에서 사용된 조건문도 원래는 일반적인 조건적 진술로서 (58)에서와 같이 후건의 실현 여부는 전건의 실현 여부에 의해 결정되었다.

(58) Wenn Sie es mir gestatten, möchte ich eine Zigarette rauchen.

원래 이런 조건문은 ‘허락 구하기’와 같은 언어 행위에서 조건을 표현하는 기능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wenn ich fragen darf”, “wenn ich offen sein darf”, “wenn es nicht zu unhöflich ist” 등과 같은 표현들과 마찬가지로 형식적인 어법으로 빈번하게 사용되면서 전건과 후건 사이에는 더 이상의 의미적 연관 관계가 존재하지 않게 된 것으로 보인다.<sup>23)</sup>

### 4.3.3 담화구성적 조건문의 의사소통기능

다음과 같은 조건문은 이어지는 발화의 주제를 소개하거나, 전건과 후건의 응집성을 형성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

23) 공손 어법으로 굳어진 조건문도 적절한 상황이 주어지면 (58)과 같이 결합-통합 구조에서 실현될 수 있다.

(59) Wenn wir über Tibet sprechen, das ist ein sehr schönes Land.

(60) Wenn man sieht, was Politiker machen, die sind sehr konservativ.

(59)와 (60)에 있는 조건문들은 담화구성적 조건문이라고 부르겠다. 여기서 조건문은 이어지는 발화의 주제를 소개하는 기능을 가지며, 이를 통하여 이어지는 발화의 내용을 한정하고 그 이후의 발화에 대한 틀을 제공하는 점에서 전건과 후건의 응집성 형성에 기여하며 대화 구성적 기능을 수행한다.

## 5. 맺는 말

본 논문에서는 조건문이 주문장과 형성하는 다양한 통사적·의미적 관계가 조건문의 의사소통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 먼저 조건문과 주문장이 갖는 통사적·의미적 관계의 유형을 분류한 후, 각 유형에 나타나는 조건문의 의사소통기능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통사적으로 결합 구조를 갖는 조건구문은 의미적으로 통합 구조를 가지며, 통사적으로 비결합 구조를 갖는 조건구문은 의미적으로 비통합 구조를 갖는다는 것이 밝혀졌다. 또한 결합-통합 구조에서 나타나는 조건문은 독립적인 의사소통기능을 갖지 못하지만, 비결합-비통합 구조에서 나타나는 조건문은 독립적인 의사소통기능을 갖는다는 것도 밝혀졌다. 그리고 독립적인 의사소통기능을 갖는 조건문은 그것이 수행하는 의사소통기능에 따라 적정조건문, 메타의사소통적 조건문, 그리고 담화구성적 조건문으로 하위 분류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조건구문은 대개 결합-통합 구조를 갖는 유형과 비결합-비통합 구조를 갖는 유형으로 나누어지지만, 드물게는 결합-비통합 구조를 갖는 유형과 비결합-통합구조를 갖는 유형도 발견된다. 이 유형들을 이 연구에서 제시한 분석의 틀 안에서 어떻게 다루어야 할 지는 앞으로 더 연구해야 할 과제이다. 또 독립적인 의사소통기능을 갖는 조건문으로 수행되는 화행의 유형에 대한 연구도 앞으로 더 상세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 참고문헌

- 강창우 (1997): “화행과 언어적 단위의 관계에 대하여. 독일어 인과문을 중심으로”. In: 텍스트언어학 4, 63-88.
- 강창우 (1998): “인과문과 상관문의 의미 관계”. In: 독일문학 39-1, 375-397.
- 최정미 (2001): 독일어 조건문의 유형과 의사소통기능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Athanasiadou, Angeliki/Dirven, Renée (1997): “Conditionality, hypotheticality, counterfactuality”. In: Athanasiadou, Angeliki/Dirven, Renée (Hgg.): On conditionals Again. Amsterdam, 61-96.
- Bergner, Helmut (1975): “Überlegungen zur Kausalbestimmung in der deutschen Sprache”. In: Deutsch als Fremdsprache 12, 50-57.
- Boettcher, Wolfgang/Sitta, Horst (1972): Deutsche Grammatik III: Zusammengesetzter Satz und äquivalente Strukturen. Frankfurt a.M.
- Brinkmann, Hennig (1971): Die Deutsche Sprache. Düsseldorf.
- Bußmann, Hadumod (1990): Lexikon der Sprachwissenschaft. Stuttgart.
- Dancygier, Barbara (1993): “Interpreting conditionals: time, knowledge and causation”. In: Journal of Pragmatics 19, 403-434.
- Dancygier, Barbara (1998): Conditionals and Prediction. Cambridge.
- Duden (1995): Die Grammatik. Mannheim.
- Dürscheid, Christa (1991): Modelle der Satzanalyse: Überblick und Vergleich. Köln.
- Eisenberg, Peter (1994): Grundriß der deutschen Grammatik. Stuttgart.
- Engel, Ulrich (1996): Deutsche Grammatik. Heidelberg.
- Erben, Johannes (1972): Deutsche Grammatik. Ein Abriss. München.
- Fabricius-Hansen, Cathrine/Soebø, Kjell Johan (1983): “Über das Chamäleon *wenn* und seine Umwelt”. In: Linguistische Berichte 83, 1-35.
- Ford, Cecilia E./Thompson, Sandra (1986): “Conditionals in discourse: a text-based study from English”. In: Traugott, Elizabeth Closs/Meulen, Aliceter/Reilly, Judy Snitzer/Ferguson, Charles A. (Hgg.): On Conditionals. Cambridge, 353-372.
- Ford, Cecilia E. (1997): “Speaking conditionally: some contexts for

- if-clauses in conversation". In: Athanasiadou, Angeliki/Dirven, Renée (Hgg.): *On Conditionals Again*. Amsterdam, 387-413.
- Geis, Michael/Zwicky, Arnold (1971): "On invited inferences". In: *Linguistic Inquiry* 2, 561-565.
- Günthner, Susanne (1999): "Wenn-Sätze im Vor-Vorfeld: Ihre Formen und Funktionen in der gesprochenen Sprache". In: *Deutsche Sprache* 27, 209-235.
- Haiman, John (1978): "Conditionals are topics". In: *Language* 54, 564- 589.
- Harweg, Roland (1971): "Zum Verhältnis von Satz, Hauptsatz und Nebensatz". In: *Zeitschrift für Dialektologie und Linguistik* 38, 16-46.
- Harweg, Roland (1972): "Die kausalen Konjunktionen *da* und *weil*". In: *Zeitschrift für vergleichende Sprachforschung* 86, 137-154.
- Heidolph, Karl-Erich/Flämig, Walter/Motsch, Wolfgang u.a. (1981): *Grundzüge einer deutschen Grammatik*. Berlin.
- Helbig, Gerhard/Buscha, Joachim (1998): *Deutsche Grammatik*. Leipzig/Berlin/ München.
- Hermodsson, Lars (1978): *Semantische Strukturen der Satzgefüge im kausalen und konditionalen Bereich*. Stockholm.
- Jackson, Frank (1987): *Conditionals*. Oxford.
- Kang, Chang-Uh (1996): *Die sogenannten Kausalsätze des Deutschen. Eine Untersuchung erklärenden, begründenden, rechtfertigenden und argumen- tierenden Sprechens*. Münster/New York.
- Köpcke, Klaus-Michael/Panther, Klaus-Uwe (1989): "On correlations between word order and pragmatic function of conditional sentences in German". In: *Journal of Pragmatics* 13, 685-711.
- Levinson, Stephen C. (1983): *Pragmatics*. Cambridge.
- May, Jakob L. (1993): *Pragmatics*. Oxford.
- Posner, Roland (1979): "Bedeutung und Gebrauch der Satzverknüpfers in den natürlichen Sprachen". In: Grewendorf, Günther (Hg.): *Sprachakttheorie und Semantik*. Frankfurt a.M., 345-385.
- Redder, Angelika (1987): "wenn, ...so. Zur Korrelatfunktion von so". In: Rosengren, Inger (Hg.): *Sprache und Pragmatik. Lunder Symposium 1986*. Stockholm, 315-326.
- Rudolph, Elisabeth (1981): "Zur Problematik der Konnektive des kausalen

- Bereichs". In: Fritsche, Johannes (Hg.): *Konnektivausdrücke, Konnektiv-einheiten*. Hamburg, 146-244.
- Searle, John R. (1969): *Speech Acts: An Essay in the Philosophy of Language*. Cambridge.
- Sommerfeldt, Karl-Ernst (1998): *Einführung in die Grammatik der deutschen Gegenwartssprache*. Tübingen.
- Taylor, John (1997): "Conditionals and polarity". In: Athanasiadou, Angeliki/Dirven, Renée (Hgg.): *On Conditionals Again*. Amsterdam, 289-306.
- Traugott, Elizabeth Closs (1985): "Conditional Markers". In: Haiman, John (Hg.): *Iconicity in syntax*. Amsterdam, 289-307.
- Werth, Paul (1997): "Conditionality as cognitive distance". In: Athanasiadou, Angeliki/Dirven, Renée (Hgg.): *On Conditionals Again*. Amsterdam, 243-271.
- Wierzbicka, Anna (1997): "Conditionals and counterfactuals: conceptual primitives and linguistic universals". In: Athanasiadou, Angeliki/Dirven, Renée (Hgg.): *On Conditionals Again*. Amsterdam, 15-59.
- Wolfgang, Settekorn (1974): *Semantische Strukturen der Konditionalsätze*. Kronberg Ts.
- Zifonun, Gisela/Hoffmann, Ludger/Strecker, Bruno u.a. (1997): *Grammatik der deutschen Sprache*. Band 1-3. Berlin/New York.

## Zusammenfassung

### Typen und kommunikative Funktionen der deutschen Konditionalsätze

Choi, Jeong Mi/Kang, Chang-Uh(Seoul National Univ.)

In der vorliegenden Arbeit wird das Verhältnis zwischen den syntaktischen und semantischen Typen von Konditionalsätzen und deren kommunikativen Funktionen untersucht. Nach der gängigen Auffassung haben Konditionalsätze folgende syntaktische und semantische Eigenschaften:



1. Der Konditionalsatz besetzt das Vorfeld des Hauptsatzes.
2. Im Hauptsatz kann ein Korrelat wie *dann* eingefügt werden.
3. Mit dem Konditionalsatz wird eine Bedingung oder eine Voraussetzung für den im Hauptsatz ausgedrückten Sachverhalt genannt.

Aber im Korpus finden sich auch Konditionalsätze wie folgende, die keine dieser Eigenschaften haben:

- (1) Wenn du es noch nicht wußtest, Karl ist wieder im Lande.
- (2) Wenn ich mal kurz einwerfen darf, er muss sich operieren lassen.

Ausgehend von der Annahme, dass die syntaktische und semantische Struktur des Konditionalsatzgefüges mit der kommunikativen Funktion des Konditionalsatzes zusammenhängt, wird zunächst versucht, die Typen der Konditionalsätze aus syntaktischer und semantischer Hinsicht herauszustellen. Danach wird jeder Typ auf die kommunikative Funktion hin überprüft. Daraus haben folgende Ergebnisse resultiert:

1. Hinsichtlich der syntaktischen Relation zwischen dem Konditionalsatz und dessen Hauptsatz wird zwischen zwei Typen von Konditionalsatzgefügen unterschieden: nämlich, die verbundene und die nicht-verbundene Konstruktion.

2. Hinsichtlich der semantischen Relation zwischen dem Konditionalsatz und dessen Hauptsatz wird zwischen zwei Typen von Konditionalsatzgefügen unterschieden: nämlich, die integrierte und die nicht-integrierte Konstruktion.

3. In der Regel weisen die Konditionalsatzgefüge mit der integrierten Konstruktion syntaktisch eine verbundene Konstruktion auf, während die Konditionalsatzgefüge mit der nicht-integrierten Konstruktion eine nicht-verbundene Konstruktion haben.

4. In Bezug auf die illokutionäre Selbständigkeit wird zwischen zwei Typen von Konditionalsätzen unterschieden: nämlich, Konditionalsätze mit einer selbständigen illokutionären Rolle und Konditionalsätze ohne eine solche.

5. Die Konditionalsätze in der verbundenen und integrierten Konstruktion haben keine selbständige illokutionäre Rolle, während die Konditionalsätze in der nicht-verbundenen und nicht-integrierten Konstruktion eine selbständige illokutionäre Rolle haben.

6. In Bezug auf die kommunikative Funktion der Konditionalsätze mit einer selbständigen illokutionären Rolle wird zwischen drei Typen von Konditionalsätzen unterschieden: Relevanz-Konditionale, metakommunikative Konditionale und diskursstrukturierende Konditionale.